

# 오리고기등급제와 함께 대한민국 오리 시장 선두에 서겠습니다

(주)다솔 박철완 전무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그 어떤 육류보다도 식탁의 건강식으로 점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리 관련 사업을 큰 틀로 나누면 사육, 도압, 신선가공, 육가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다솔은 오리의 부화와 사육을 전문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생산과 유통·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더욱 신선한 제품으로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 코리아더커드와 팜텍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해 오리의 모든 부분을 One-stop System으로 구축했습니다.

1981년 '영진축산'으로 첫발을 내디딘 코리아더커드는 건강한 오리고기를 통하여 지난 30여 년간 풍요로운 식탁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오리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는 다향오리, 오리노보 등의 브랜드로 더 익숙할 것입니다.



도압된 오리 선별 작업

이후 30여 년간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사로잡기 위해 쏟아온 노력은 경험과 기술력으로 축적됐고, 그 과정에 코리아더커드는 국내 오리고기 육가공 업계에서 그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깨끗하고 건강한 오리고기로 새로운 식문화를 창출한다는 사명 아래 국내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오리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계절 맛있는 닭'을 런칭해 새로운 닭의 취식 문화를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차게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온 (주)다솔은 2011년 11월 21일 오리고기등급제를 코리아더커드(전북 남원)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오리고기등급제가 2012년 7월 도입됐으니 그때는 시범사업을 할 때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오리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 오리고기등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그리고 등급제와 맺은 연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축평원 자료에 따르면 오리고기등급제가 2015년 전체 도입량 중 16% 정도를 등급판정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차 소비자들도, 유통매장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등급판정한 오리고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등급판정한 제품을 먼저 찾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성장한 기록이니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등급판정 품목이 아닌 자율의사에 따른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계란, 닭, 오리 중 업계 최초로 지난 7월 19일부터 (주)다솔에서 생산되는 통오리에 대해 모두 등급판정을 게시하는



오리 발골 해체 작업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번 전 두수 등급판정 게시를 통해 소비자가 등급판정 받은 오리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품질에 따른 공정한 유통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다솔과 연계한 생산 농가의 사양 관리 표준화를 유도하고 소득 증대 등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다솔과 함께한 오리고기등급제는 국내산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만들고 오리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오리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오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임을 장담합니다.

국내 최초 오리고기등급제와 오리 전 두수 등급판정 실시, 수직 계열화를 통한 계열사 관리, 무항생제 인증 및 조류독감에도 문제없는 방역과 집중 관리 등 (주)다솔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리고기등급제와 더불어 (주)다솔이 건강을 품은 오리로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며 국내 오리고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오리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리 전 두수 등급판정 게시

새로운 과학! 국내 최초!  
오리 전수 등급판정 시범사업 게시

17정부 3.0